

#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묘

- 제주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그리고 환태평양의 신화 총체적 판도 조망 -

김헌선\*

<차례>

1. 태평양의 민족지 지도
2. 제주도 본풀이, 태평양 신화 요해의 출발점
3. 태평양 신화의 대가닥  
: <Hainuwele신화>와 <Maui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4. 제주도 본풀이로 보는 태평양 신화학의 전망

## 국문요약

이 논문은 태평양 신화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에 해당한다. 태평양신화는 매우 포괄적인 대상으로 크게 오세아니아신화를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인도네시아 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본풀이와 신화를 초점으로 해서 다루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두 다룰 수 있다. 특히 여성살해신화와 남성트릭스터 등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짚 수 있을 것이다. <초공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 등이 단서로 되고, 이러한 패턴이 곧 하이누벨레신화와 마우이신화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태평양신화가 소중한 이유는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섬들의 신화적 구조가 서로 공통점을 전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지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신화에 대한 총괄적 이해는 있었지만, 오로지 구비전승이나 구비전승의 기록에 의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섬의 신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 경기대학교

는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화에서 볼 수 없는 원시 신화의 순수한 야생성과 인간의 진지한 생에 대한 모색은 신화 연구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게다가 태평양의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신화는 한번도 통일왕조와 중세문명의 세례를 입지 않는 쪽에서 전하고 있는 구비신화의 진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왕권이나 특정한 권력에 기울지 않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먹거리 문제와 생식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신화의 참된 면모이다.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태평양신화의 진정성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온전함을 구조적인 지형학으로 파악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주제어 : 태평양신화, 하이누벨레신화, 구조적 지형학, 마우이신화, 히나신화

## 1. 태평양의 민족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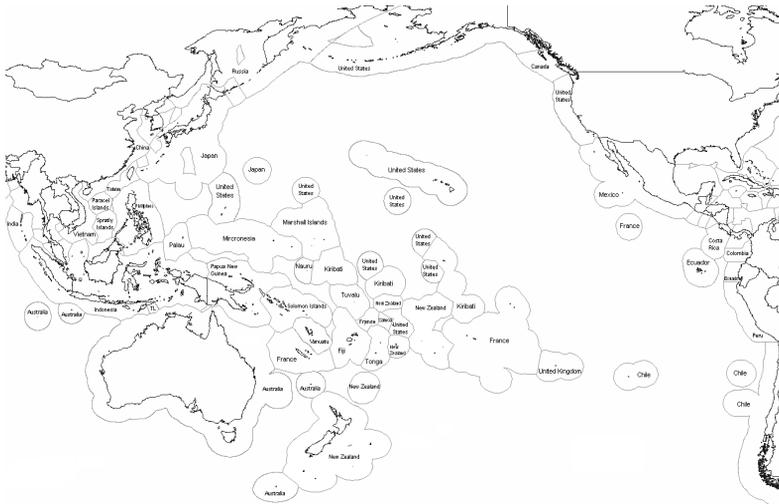
이 글은 태평양 신화 연구를 위해서 마련된다. 그래서 이 글은 작업 설계도를 제시하는 개괄적이고 거칠고 완성되지 않은 예비적 작업에 해당한다. 태평양 신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실제로 현지조사의 체험이 전무한 형편이므로 과연 이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빠뜨리게 배워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화에 대한 기대지평을 넓히고 인식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데 있으므로 즐겁고 가슴이 설레는 모험이 된다.

대륙 위주의 신화 연구가 우리에게 안겨준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신화의 세계는 무한정 열려 있으며 특정한 주체나 집단의 역사를 투쟁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섬을 옮겨 다니면서 섬을 중심으로 사는 원시부족의 위대한 인간의 개척과

문화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으리라 예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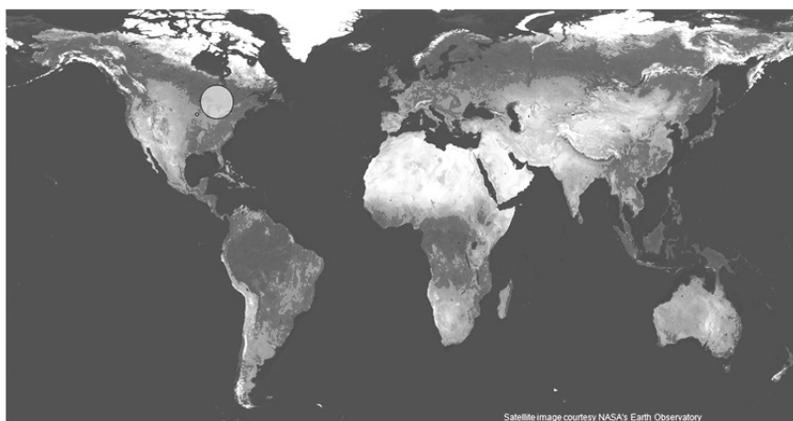
땅에서 이루어진 신화보다 바다에서 섬에서 떠다니는 신화의 특징이 땅에서 이루어진 신화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는 점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바다의 신화와 섬의 신화는 자체로도 소중하면서 동시에 대륙에서 이룩된 신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태평양 신화를 다루기 위해서 태평양에 관한 지리적인 실상을 전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태평양을 거칠게나마 구조적 위상으로 파악하는 일은 태평양 신화를 다루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태평양의 광활한 면모를 조감할 수 있는 지도 한 장이 있다. 이 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태평양의 지리적 범위와 무엇을 다룰 수 있는 지 적어도 위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도를 하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지도〉

위의 지도는 입체적인 지구의 대륙과 대양을 이차원적인 평면으로 옮겨놓은 지도이다. 이 지도는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지도의 구현 양상이 달라진다. <태평양지도>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은 일련의 위성지도를 옮겨보아도 마찬가지 결과이다. 입체를 평면으로 옮겨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태평양의 위성지도〉

태평양의 지도가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고민이고, 한 장으로 처리되어도 문제는 지리적 판도만 알 수 있을 따름이고 무엇이 어떠한 것인지 세부적인 정밀 지도가 필요한데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태평양의 총괄적인 지도를 막연하게 알 일이 아니라, 총괄적인 그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다.

태평양지도는 태평양의 판도 전체가 보이지만 인도양과 대서양의 면모가 보이지 않고, 태평양 위성지도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잘 보이지만 태평양의 전체 판도가 보이지 않아서 결격 사유가 있다. 왜 이러한 현상

이 발생하는가? 구형의 지구를 평면으로 옮기면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입체적 그림의 제한성을 느끼게 된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아도 결과적으로 이차원의 평면은 만부득이하게 제한점을 가지게 마련이다.

세계지리 속의 바다를 알았다고 해도 인문학문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은 이 바다를 끼고 어떠한 민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실감이 갈 수 있는 지도가 새삼스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밀한 민족학적 지리학이 구사된 실제의 그림이 있어야만 세계지리학에서 벗어나서 세계민족학적 구도가 잡히고 민족의 태평양 상 분포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태평양의 민족지도가 분명하게 구현되면서 민족학적 권역이 표현되는 지도가 있어야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평양신화의 면모를 총괄적으로 구성해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태평양의 민족지적 지도가 일정한 권역으로 나누어진 지도가 필요하고 이를 찾아서 제시해야 범위와 위상이 더욱 선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적절한 사례로 일찍이 민족지 지도를 그린 전례가 있다. 가장 적절한 사례가 바로 특정한 연구자가 이러한 관점을 지향하면서 전반적인 민족의 분포와 특정한 권역을 다룬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면서 이 지도를 원용하는 것이 작업의 수월성을 보일 것으로 본다. 이 지도는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을 내세워서 이를 민족지적 관점에서 영역을 정리해서 보여준 그림이다.<sup>1)</sup>

---

1) Roland Burrage Dixon, *Oceanic-the Myths of Polynesia, Micronesia, Indonesia, Melanesia, Australia(The Mythology of All Race, Volume IX)*, Cooper Square Pub, 1932, pp.366-367 이 저작에서 오세아니아의 민족지적 영역에 대한 판도를 구체화해서 예시한 바 있다. 이를 일단 원용하고자 한다.



는 동인도어를 사용하는 섬을 포함한 동쪽으로 몰룩섬에서부터 서쪽으로 수마트라 섬까지를 그리고 남쪽으로 자바와 티모르, 그리고 북쪽으로 필리핀까지를 포함한다.<sup>4)</sup> 미크로네시아는 말 자체로 작은 섬들을 말하는데 멜라네시아의 북쪽과 길게 걸쳐진 130여개의 부속 섬으로 구성된 곳을 말한다.<sup>5)</sup>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스마니아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6)</sup>

덕슨의 정의는 거칠게 제시된 것이기는 해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며, 실제로 태평양의 민족지적 성격에 근거한 것으로 유용하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덕슨의 오세아니아 개념은 제한적인 의미가 있으니 가령 인도네시아의 범위로 넣은 지역의 제한성이 있다. 대만은 논의에서 직접 포함하고 있지만, 제주도, 오키나와열도, 한국, 일본, 북해도, 사할린, 오오츠크해, 알래스카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족한 견해이고 불만스러운 견해이다.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중심과 주변이 있을 수 없다. 바닷물은 하나이

---

(2) Melanesia, comprising the huge island of New Guinea, together with all the islands and archipelagos extending therefrom to the east and southeast as far as Fiji and New Caledonia;

4) Roland Burrage Dixon, 같은 책, p. xi

(3) Indonesia, which includes all the islands often spoken of as the East Indies, and extends from the Moluccas on the east to Sumatra on the west, and from Java and Timor in the south to the northern extremity of the Philippines;

5) Roland Burrage Dixon, 같은 책, pp. xi-xii

(4) Micronesia, composed, as its name implies, mainly of small islands, and occupying the area north of Melanesia and east of the 130th meridian of east longitude;

6) Roland Burrage Dixon, 같은 책, p. xii

and lastly (5), but by no means, least in importance, Australia, together with Tasmania.

므로 하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심과 주변의 경계 구분은 필요 없다. 그러나 바다는 여럿이다. 여럿이므로 주변이 중심이고 중심이 주변이 되는 점을 절감하여야 한다. 원효의 논리식으로 말하면 태평양의 바다를 실현하고 실체를 잡기 위해서 가장 자리를 떠났으면서도 가운데가 아니고, 가운데가 아니면서 가장자리를 떠나는(離邊而非中 非中而離邊)의 슬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태평양의 신화학은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제를 미리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명하다. 화염의 바다와도 같은 거대한 신화의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총괄적인 면모를 살피고 어느 한 주변도 있어서는 슬기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태평양의 신화학은 우리가 사는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거대한 곳에 이르는 작업의 순서를 가져야 하겠다. 개명한 세상의 정보를 집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구조적인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태평양의 신화학은 이 지역의 신화적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일정하게 통일된 왕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중세의 문명권의 세례를 비교적 받지 않았으며, 중세문명의 보편종교에 타격을 입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태평양의 신화적 기반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시신화나 고대신화에 머물러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신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정한 신화가 있다. 이 신화가 바로 Hainuwele 신화와 Maui신화이다. 이 신화는 원시신화적 성격이 강하고, 고대의 창세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태평양 신화 전반을 훑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작업으로 될 수 있다.

Hainuwele신화는 여성 살해를 핵심으로 하고 원시수렵문화에서 농경재배문화로 이행하는 문화사적인 전환을 중요한 주제로 하는 신화이다. 성적 결합과 여신의 살해, 그리고 농경작물의 기원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이 신화의 골자인데, 이 신화가 태평양 신화학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Maui신화는 남성 장난꾸러기 신화이다.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인간에게 유익한 삶인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영웅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신화인데, 특히 트릭스터로서 세계적인 분포와 변이를 지니고 있으며 신화적 주제를 구현한다. 인간의 영생을 찾고자 하는 점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결말을 지닌 신화이다.

두 가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지만 원시시대와 고대시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상보적 특징을 있고 두 가지 신화는 태평양의 대표적인 신화적 주제 비교의 근거로 되고 구조적인 유형학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자료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로 귀결될 예정이다.

## 2. 제주도 본풀이, 태평양 신화 요해의 출발점

제주도의 본풀이는 세계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 대양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출발해야 세계를 하나로 휘어잡아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대륙에 연해있고,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통로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를 명확하게 이해 하면서 이 본풀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이해의 단서를 찾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자체로서도 소중하지만 육지부의 구전서사시 이해에도 소중한 기여를 하는 자료이다. 제주도의 본풀이가 세계구전서사시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판도를 제시하는 작업이 이미 있었으므로 이를 소중한 디딤돌로 삼아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7)</sup> 이 작업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계신화, 특히 태평양 신화를 접근해서 다룰 수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본풀이에 착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천지왕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세상을 만든 주체에 대한 것이지만 아직 이 본풀이의 세계적 의의에 대해서는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본풀이의 요체가 여럿이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가장 중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제1의 창조자가 아니지만 제2의 평행창조자로 소중한 인물들이다. 특히 소별왕은 그러한 성격이 분명하고 트릭스터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다른 하나는 <초공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육지부의 <제석본풀이> 유형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육지부와 다른 제주도만의 고형의 신화소가 있으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특히 자지맹왕아기씨가 죽임을 당하는 화소가 있는데, 이 화소가 매우 중요하고 제주도의 세계적인 의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계통의 신화소로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각씨 살해화소 역시 동

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이 작업은 구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세계적 판도 비교론인데 통사적 관점에서 구비서사시의 역사적 변천과 양상을 정리한 작업이다. 세계의 구전서사시와 기록서사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집적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신화에 관한 작업은 보완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일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두 가지 본풀이는 제주도의 곳에서 순서로 보면 선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본풀이의 많은 서사적 내용 가운데 소중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착안이 그간의 연구에서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그 연구를 선명하게 집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서사의 전체적인 내용보다 특정한 신화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이야기의 결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곳에서 불리는 순서를 달리해서 이 본풀이가 소중한 이유를 문면을 대상으로 해서 살피고자 한다. 먼저 <초공본풀이>인데, 자지맹왕아가 씨의 살해 증거가 있는 문면을 들기로 한다.

“불쌍헌 우리 어멍 아방 없는 우리덜 삼형제 나근에(나서) 일천(一千) 고생헤연 우리덜 삼형제 동녕 글 헤연에 과거 헤형 어머니뎌 뵤옴젠(뵤려고) 허난 과건 허민 무얼 허멍(하며) 등당은 허민 땃 허멍 어느 누게 볼 것고(것 인고). 어수에(御賜花)도 돌아가라, 비수에(妃賜花)도 돌아가라.”

삼만관속(三獻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다 돌려두고, 설룬 어머니 그 만 허난 죽었구나. 행경 벗언 우(위) 퍼진 두건(頭巾) 찌고 두루막 벗언 웬 독지레(어깨에) 걸천에(걸쳐서), 어멍 죽언 딱딱허고 우리덜 키옴젠(키우려고) 현 게 즘진(자잘한) 므심(마음) 먹언에 키왔고나.

머구낭 방장대 짚어 앓안 아이고 대고 어덜 가코? 성진 땅이 잇어근 좃앙 가멍, 웨진 땅이 잇어근 좃앙 가멍, 아는 건 웨하르방 땅만 아난에(아니), 어머니뎌 흘병막은 헤싼보난(헤쳐보니) 스웨 신체(身體는) 엇고, 물명지 단속곳 본메 본짱 잇었구나.<sup>8)</sup>

이 대목은 삼천선비와 느진덕정하님이 공모해서 잿부기삼형제의 어

8)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9-140면.

머니인 자지멩왕아기씨를 죽이자 삼형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상복을 입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지멩왕아기씨의 ‘출병막’이다. 어머니가 살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살해되었으나 시신이 없다고 하는 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된다.

자지멩왕아기씨가 가봉분에 있는 사실은 두 가지 각도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초공본풀이>와 동일한 유형인 <제석본풀이>의 여신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초공본풀이>를 통해서 태평양 신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추론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슬한 의문투성이인 <초공본풀이>를 되돌아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석본풀이>에서 당금애기는 깊은 곳에 갇힌다. 모든 각편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본풀이의 여신인 굴이나 깊은 곳에 갇히는 일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유화의 전통에서 오는 여성의 죽음이나 살해와 관련이 있으며, 이곳에서 여신은 재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곡모신 노릇을 하는데 이러한 전통을 바로 당금애기가 신화적으로 재현한다.

당금애기는 곡모신이자 곡령신으로 일정한 직능을 수행하는데 이 면 또는 신화인 본풀이에서 희미하다. 반면에 민속신앙의 가신신앙으로 제석오가리, 건궁제석, 제석항아리, 부룻단지 등에다 곡령으로 버나 쌀을 섬기는 것과 일정하게 대응한다. 본풀이의 부족한 부분을 제석의 가신신앙에서 보충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이 갇혀 있다가 곡령으로 섬겨지는 것에 근거하여 <초공본풀이>는 여신의 살해와 관련을 지니게 된다. 여성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 이 계통의 본풀이 유형에서 여성신은 마치 데메

테르처럼 살해당하는 존재이다. 여신살해와 곡령신앙의 연계점을 <초공본풀이>에서 보여주며, 삼천전저석궁을 지키는 여신으로 거듭 나게 되는 점이 다르다.

자지멩왕아기씨의 살해모티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신화소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Hainuwele신화의 하이누벨레와 성격이 상통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신화의 세계적인 가치를 입증한 논저에서 이 인물의 실상이 명확하게 전하는데 여신의 살해와 함께 여신이 곡물로 다시 생겨난다.<sup>9)</sup> 이 점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신화를 통해서 자지멩왕아기씨의 본질이 무엇인지 반추하게 하는 요인이다.

<초공본풀이>의 자지멩왕아기씨의 살해 신화소는 태평양의 신화적 공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한 자료로 <영실 오백장군>은 죽은 어머니를 먹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료 역시 여신 살해의 화소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온당한 자료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sup>10)</sup>

<천지왕본풀이>는 매우 복잡한 본풀이이다. 이 본풀이에서 핵심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평행창조 신화소이다. 이 신화소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고 대륙의 신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내용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평행창조의 내용은 흔하

9) Jensen, A.E. and Herman Niggemeyer, *Hainuwele ; Völkserzählungen von der Molukken-Insel Ceram* (Ergebnisse der Frobenius-Expedition vol. I), Frankfurt-am-Main, 1939.

Joseph Campbell, *The Masks of God : Primitive Mythology*, 1959. ; 이진구역 <신의 가면 1 : 원시신화>, 까치, 2003.

大林太郎, 『神話學入門』(中公新書, 1966年); 權泰孝·兒玉仁夫翻譯, <神話學入門>, 새문사, 1990.

10) 현용준, 오백장군,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44-46면.

게 나타나는 신화소이다. 평행창조는 이중창조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다.<sup>11)</sup>

대별왕은 무정(無情) 눈에 즙은 자란, 소별왕은 소면(少眠?)현 즙을 자란 성님 앞에 꽃은 이녁(자기) 앞더레(앞으로) 둥기고(당기고), 이녁 앞에 꽃은 성님 앞더레 밀려두언, “성님 혼저(어서) 일어답서. 꽃상기나 헤여보게.” 대별왕이 일어난 보난, 꽃은 선후도착(先後倒錯) 뒤텔구나. 설룬 동생아, 널로부떠(너로부터) 의몽허기로 이성법 마련허긴 마련허라만은, 이성법은 강적수적(強賊水賊)이여, 스회살인(詐欺殺人)이여, 살인방화(殺人放火)여, 있이리라(있으리라). 저성법은 이수농장 법이여. 주년날 춤썰ㄷ똥(참실같은) 법이로다.<sup>12)</sup>

평행창조는 이승과 저승의 판도를 분할하는 것인데, 이 신화소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부정적인 속임수를 쓰는 신의 등장이라고 하겠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세상을 정립하는데, 소별왕이 부정적인 구실을 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남성의 쌍둥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남녀의 이중창조와 구분되면서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우주적 혼돈은 해와 달이 두 개가 되어서 인간 세상의 혼돈이 야기된다. 이를 큰 활을 가지고 정리하여 질서를 수립하게 되며, 평행창조의 긴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천지왕본풀이>의 각편에 따라서는 이중창조가 우주적 범위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제주도 <천지

11) 大林太良, 《神話の系譜, 日本神話の源流をさぐる》(東京 : 青土社, 1986), pp.61-62 오바야시 다료가 세계적인 범위의 동일한 유형과 신화소를 가진 것을 모아서 비교한 논저로 평행창조와 이중창조의 중요성을 다룬 저작이다.

12)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11면.

왕본풀이>의 보편적 유형 신화소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적 혼돈은 본래의 질서를 부정하는데서 생기는데, 이러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소별왕이다. 소별왕이 우주적 질서를 정립하고자 인간 세상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상으로 바꾸어놓으면서 속임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신의 세상이 지니는 청정한 법을 부정하고 이것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소별왕의 성격 가운데 일종의 트릭스터적 면모가 있다.<sup>13)</sup> 소별왕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임무를 가지지만 신의 다툼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여 인간 문화의 기원을 이룩한 인물이다. 소별왕의 속임수는 인간 세상을 해명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신의 질서를 부정하고 신이 창조한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별왕이 간섭한 우주적 혼돈의 정립과 사회적 무질서의 초래는 양면적이고 <천지왕본풀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고 신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은 트릭스터가 경계면을 넘나들면서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창조하는 구실이며, 이 경계면에 오가는 일은 트릭스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세계와 단절하고 인간의 세계가 문화적인 영웅 또는 창조자에 의해서 신의 세계를 실현한다. 따라서 소별왕은 인간 세상을 훔쳐서 가지는 영리한 도둑이자 인간의 대변자 노릇을 하게 된다. 신의 세계를 훔쳐서 새로운 인간 세상을 만드는 영리한 인간의 상징이 바로 소별왕

---

13) Paul Radin,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Schocken, 1987.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의 여신살해와 평행창조의 장난꾸러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본풀이로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육지부의 이야기와 본풀이에 일부 면모가 전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제주도의 물과 섬의 경계면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제주도 <초공본풀이>에서 자지맹왕아기씨에서 발견된 면모는 육지부의 <밀의 기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요소이다.<sup>14)</sup> 남자에 의해서 특정한 남자 셋이 살해되는데, 이 살해된 남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밀이고 밀에서 술이 나왔으며, 술을 마시면 이 남성 셋의 영혼과 조우한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체이다.

인간이 살해되고 그 몸속에서 식물을 재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조상신을 살해하자 인간의 농경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특정한 트릭스터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달라서 신의 세계에 대한 영리한 인간의 속임수에서 나온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 조상의 살해, 인간의 살해가 농경과 문화 창조로 이어지는 특정한 신화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초공본풀이>가 무조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무당의 중요한 신 직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와 상통한다. 그러나 성격을 달리하여 농경신의 면모는 상당수 소거되고, 오히려 무조신의 성격만이 강화되어 있다. 여신살해의 흔적은 있지만 결과물이 다르다. 농경의 기원이기보다는 조상의 기원담으로 변화되었다.

<초공본풀이>와 <밀의 기원>은 그러한 점에서 Hainuwele신화의

14) 김현선, <밀의 기원>담의 Hainuwele적 성격, 2010년 4월 2일 미발표 논문.

양면을 이어받은 점이 확인된다. 하나는 농경의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여신살해의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섬과 물의 자료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야기의 근원을 밝히지 않고서는 선명하게 요약되지 않는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는 그 자체로 제주도에서 다양한 유형적 변이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지부의 자료와 서로 연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구전설화의 평행창조 신화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명칭은 달라지고 신화소의 내용도 달라지지만 평행창조가 우주적 혼돈과 사회적 혼돈에 층위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다.

일단 육지부에서는 이것이 미륵과 석가, 선문이와 후문이로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선문이와 후문이는 우주적 혼돈만 해결하고, 둘 사이의 속임수가 없이 사회적 혼돈은 야기되지 않는다. 미륵과 석가, 선문이와 후문이 등의 대결에 의한 평행창조는 중국과 일본, 월남, 그리고 오키나와 일대에서 두루 발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주적 거인의 트릭스터적인 면모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개입으로만 되어 있는 이야기와 이와 달리 우주적 혼돈을 거세하는 이야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이것이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기 위해서 거시적인 관점의 비교가 요망된다.

세상을 창조하고 문화적 영웅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자료는 오세아니아 신화에서 그 구조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 인물이 바로 Maui신화에서 등장한다. Maui는 탄생, 성장, 심부, 우주적 혼돈 정리 등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인물의 폴리네시아 유형이 바로 Maui신화이다.

뉴질랜드, 하와이, 이스터섬 등을 하나로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되는데 이 지역의 트릭스터인 Maui가 있다. 세상을 창조하고 장난꾸러기 노릇을 하면서 다면적인 트릭스터 구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면모이다. 이 유형의 인물이 하는 행위의 신화소가 바로 트릭스터담으로 되는 것은 소별왕의 신화적인 행적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태평양 신화의 대가닥

: 〈Hainuwele신화〉와 〈Maui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 3.1. 태평양 신화의 한 가닥 : 〈하이누벨레신화〉의 원형과 변형

〈Hainuwele신화〉<sup>15)</sup>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권역의 신화로 세계적 범위에서 전승되고, 특히 북태평양과 환태평양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는 신화이다.<sup>16)</sup> 이 신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여신을 살해하고 이 몸에서 곡식이 기원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신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이기로 한다.

코코넛 야자 처녀라고 불리는 하이누벨레는 인도네시아 말루쿠에 있는 세람의 섬에 전승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누누사크 산의 정상 바나나 나무 열매에서 태어난 인간 선조 가운데 아메타(아메타는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남자가 있었다. 아메타가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다가 개에게 쫓긴 멧돼지 한 마리가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을 보았다. 개가 멧돼지를 건지

15) Jonathan Z. Smith,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 301-330

16) [http://www.frobenius-institut.de/index.php?option=com\\_frontpage&Itemid=1](http://www.frobenius-institut.de/index.php?option=com_frontpage&Itemid=1)

게 되었다. 멧돼지의 어금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열매를 발견하였다. 세람 섬에서 사냥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세람 섬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어떤 코코넛을 발견했다.

아메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밤 꿈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코코넛임을 알려주고 이것을 심을 것을 지시하였다. 아메타가 그렇게 하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코코넛이 큰 나무로 자라났으며 온전하게 되었다. 아메타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코코넛 열매를 잘라서 밑으로 내렸으나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게 되었으며, 열매에 핏방울이 떨어졌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메타는 이곳의 열매가 있는 데서 코코넛 가지라는 이름의 뜻을 무루아 하이누벨레라는 여성을 발견한다.

하이누벨레는 비록 오히려 불쾌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의 소명에 응대할 때에 그녀는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배설하였다. 아메타가 그것을 불쾌하게 간주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아메타는 매우 부자가 되었다.

하이누벨레는 9개의 광장에 있는 데서 아홉 겹의 동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Malo라는 축제를 차례대로 하게 되었다. 남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날차별로 제공하여 주었다. 날마다 이를 제공하게 되자, 공여하는 여자를 위한 전통적인 축제가 아홉 광장에서 9일 동안 매일 춤을 추는 말로 Malo라는 축제가 있을 때에 마을에서 춤을 추고자 했다. 하이누벨레는 그렇게 했으며, 그러나 남자들이 그녀에게 요청했을 때에 그녀는 그들에게 하이누벨레가 배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었다.

매일 그녀는 점점 크고 더욱 값비싼 것을 주었는데, 가령 황금 귀걸이, 산호, 자기로 된 접시, 칼, 구리로 된 상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징 따위가 이것이다. 마을 남자들은 마침내 하이누벨레가 거둬 좋은 것을 주자, 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악한 존재일 수 있다고 결정하고, 그녀를 죽일 것을 작정하였다. 마을 남자들은 춤을 추는 가운데다 구덩이를 파고 하이누벨레를 그곳에 밀어 넣고 그녀를 흙으로 덮었으며 흙을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다졌다.

아메타는 하이누벨레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다. 아메타가 결국 무

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으며, 그는 그녀의 시체를 파내었으며, 시신을 조각으로 나누어서 마을 주위에다 다시 묻었다. 이 조각들은 자라 다양한 구근이 있는 식물로 자라났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음식의 원리를 일러주는 원천이 되었다.<sup>17)</sup>

하이누벨레신화는 각편이 모두 6편이 채록되었다. 엔젠이 채록한 자료가 비교적 서사의 내용이 풍부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이 신화는 매우 복잡한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게 되면 비교적 간명하다. 이 신화는 일련의 싸이클을 구성하고 있다.

하이누벨레신화는 문화사적 단계를 요약하고 있으니 아메타의 멧돼지 사냥, 하이누벨레의 출생, 하이누벨레의 살해, 구근류의 기원 등이 핵심적으로 등장한다. 이 신화소는 각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메타의 멧돼지 사냥은 수렵시대의 반영 결과이다. 하이누벨레의 출생은 인간의 피와 식물의 결합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이누벨레의 살해는 식인관습의 반영이고, 이는 일정하게 말로 축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므로 이 현상에 입각해서 보면 성인식이나 특정한 의례에서 데마여신을 살해하는 전통적인 면모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누벨레를 살해하면서 이 시신을 나누어 심자, 거기에서 구근

17) Jensen, A.E. and Herman Niggemeyer, *Hainuwele ; Völkserzählungen von der Molukken-Insel Ceram* (Ergebnisse der Frobenius-Expedition vol. I), Frankfurt-am-Main, 1939.

Joseph Campbell, *The Masks of God : Primitive Mythology*, 1959. ; 이진구역 <신의 가면 1 : 원시신화>, 까치, 2003.

大林太郎, 『神話學入門』(中公新書, 1966年); 權泰孝·兒玉仁夫翻譯, <神話學入門>, 새문사, 1990.

하이누벨레신화는 여러 각도에서 거듭 연구되었다. 그 가운데 이 신화의 존재를 중시하고 본격적으로 활용한 연구자들은 캠벨과 엘리야데 등이 있다.

류 곡물이 기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신화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몇 가지를 요점적으로 정리해서 이를 신화적 위상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 신화는 남성들이 말로 축제를 하면서 하이누벨레를 살해하자 인간에게 종래의 세계관과 다른 특정한 신화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 중적적인 사안이다. 인간의 세계가 새로운 과정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하이누벨레살해는 흔히 피푸이뉴기니아의 데마신 살해와도 상통하는 사건이다. 이 살해는 종래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전개한다. 그것은 일정한 층위를 이룩하고 있다.

가] 남성과 여성의 생식  
 내] 삶과 죽음의 구분  
 대] 농경재배의 기원

가]는 하이누벨레의 구설에서 확실하게 확인된다. 성적 결합을 하게 되면 남성들은 부를 가지게 되고, 이 부를 통해서 인간은 새삼스러이 변영한다. 하이누벨레가 여러 남성과 성적 생식을 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변영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이다. 인간의 번식과 변영을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것은 종래의 신화적 질서 속에서 신이 만든 세상과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남녀의 성적 결합에 의한 생식을 부정하고 금기시하던 것과 다르게 생식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 있다. 하이누벨레가 많은 것을 배설하여 아메타나 마을의 남성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것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생식을 가능하게 하고 생식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변영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는

신화적 위상이 새로운 것임을 알게 한다.

나]는 삶과 죽음의 구분이다. 생식을 통해서 번식하고 번영한다고 하는 점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이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물리치는 일이다. 이 과정이 하이누벨레를 땅에다 묻어버린 것이다. 말로 축제를 하면서 하이누벨레는 살해되었다.

하이누벨레의 살해는 중요한 사건이며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이누벨레를 살해하여 땅에 묻는 것은 삶이 끝나고 죽음이 왔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서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있다. 이 사체에서 농경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영생이 아니라 한정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거듭 다른 것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사고가 있다.

나]는 아메타가 마을 남자들이 묻은 시신을 파내서 이 시신을 야자나무 아래에 묻으면서 이 시신의 화생으로 곡물의 기원을 이루는 것이 핵심적인 설정이다. 자연적 채취와 주어진 섭생을 하던 인간들이 종래의 삶과 다른 곡식을 먹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 요점이다. 인간은 비로소 새로운 경작의 방식을 문화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신이 준 것을 자연스럽게 먹던 단계에서 벗어나 구근류를 재배하는 것은 자연을 부정하고 문화적 단계로 이행한 증거이다. 신화적 위상이 전혀 다르고 이 신화적인 세계관은 인간 세상의 문화적 기원을 해명하는 신화인 점이 명백하다. 신화적 설정은 창세신화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이누벨레신화>는 인도네시아의 서세람 섬에서 전승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신화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신화의 근본적인

유형적 각편이 북태평양과 남태평양, 그리고 환태평양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네오 프로베니우스의 그림에 입각해서 보면 이러한 분포는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대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분포한다.

이 신화와 엄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몇 가지 골라서 보이면 이 신화의 세계적 의의가 확인된다.

- 1] <하이누벨레신화>
- 2] <밀의 기원신화> · <초공본풀이>
- 3] <獵頭祭의 기원>
- 4] <와쿠무스비(稚産靈)> · <우케모치신화(保食神, うけもちのかみ)> ·  
<오오게즈히메신화(大氣津比賣神, おおげつひめのかみ)>
- 5] <세드나신화> 그린란드 · 캐나다의 이누잇신화(Sedna, Inuit myth)
- 6] <옥수수조상> 아메리카 오지브와 인디언신화(Chippewa/Ojibwa Tales)
- 7] <옥수수엄마> 아메리카 페노부스콧 인디언신화(Penobskot Tales)
- 8] <코요테신화> 아메리카 나바호 인디언신화(Navajo Coyote Tales)

이 신화는 유형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누벨레신화>의 핵심 화소인 조상살해와 곡물기원 또는 식량 기원의 신화소를 간직하고 있는 자료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 신화소의 공유는 많은 사실을 환기하게 한다. 적도인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출발한 이 신화소의 내용은 북태평양과 심지어 대서양의 북단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레오 프로베니우스의 분포도를 참조하게 되면 동일한 신화소의 내용이 남태평양까지 분포한다.

<하이누벨레신화>는 다소 논쟁이 있지만 식인관습과 원시농경의 단

계를 반영한 신화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일정한 부족국가를 생성하지 못하고 씨족이나 부족의 형성 단계에서 형성되었을 신화를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신살해에 의해서 조상여신을 섬기게 되고 농경과 관련되는 특정한 신화소를 간직하고 있는 신화이다.

이 신화는 인도네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지만, 주변의 여러 지역에 다양한 변이형이 생기면서 동일한 신화의 내용이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북태평양지역의 여러 신화를 유형적으로 그리고 신화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신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밀의 기원신화>와 <초공본풀이>의 신화적 내용은 우리나라 역시 <하이누벨레신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밀의 기원신화>는 여성살해의 요소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지만 사람을 살해한 곳으로부터 밀이 유래되고, 다시 밀에서 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신화는 사람의 시신으로부터 곡식이 나왔다고 하는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초공본풀이>의 여신살해 역시 <하이누벨레신화>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유형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살해된 여성이 곡식의 기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살해되고 문화적 기원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야기와 본풀이로 전하고 육지부와 섬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아주 각별한 면모이다. 중국 쪽에도 곡물기원의 신화가 있으므로 육지부의 이 신화를 주목해야 하겠으나 불분명하다. 그러나 《山海經》을 비롯하여 중국 운남성과 태국에 널리 분포한 佤族의 외족 기원신화에서 이러한 자취를 찾을 수 있으므로 섬과 물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점이 인

정된다.<sup>18)</sup>

<엽두제의 기원>은 중국과 태국의 소수민족인 佉族에게 전승되는 자료인데, <하이누벨레신화>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사람 머리를 베어서 제사를 지내는 의례와 신화는 <하이누벨레신화>가 전승되는 곳에서 널리 퍼져있으므로 이들의 상관성은 신화와 의례의 관점에서도 서로 비교 연구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전승되는 신화는 하이누벨레신화와와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육지와 섬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가장 오랜 佉族의 元祖가 야 톰과 야 타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들은 처음에 올챙이였다가 나중에 개구리가 되었으며 나중에 괴물이 되어서 동굴에 살고 있었다. 먹이를 구하러 다니면서 사슴, 멧돼지, 산양과 같은 동물을 잡아먹다가 사람 사는 동네에 가서 사람을 잡아먹고 그 두개골을 동굴로 가지고 왔다.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아이가 번식하였으며 인간의 모습을 하였다. 부부는 두개골을 기둥에 놓고 숭배하였다. 부부가 죽음에 이를 즈음에 이 숭배 의례를 알려주면서 사람의 목을 바치라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서 <獵頭祭>를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목을 자르는 제의의 계절은 농경이 시작되는 3-4월경이었다.<sup>19)</sup>

18) 외족은 사람 머리를 베는 제사를 지낸다. 그 전통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신화적 기원을 이룩하는 것으로 신화를 소개한 것은 오바야시의 저작에서 확인된다. 동시에 외족의 인두제사의례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大林太郎, 《神話學入門》(中公新書, 1966年), 134-135면.

《中國各民族宗教與神話大詞典》(北京: 學苑出版社, 1993), 589-590면.

뒤의 문헌에서 사람의 머리를 제사하는 방식인 <獵頭祭>이 1957년까지 존속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19) 大林太郎, 《神話學入門》(中公新書, 1966年), 134-135면. 이 저작에 이 신화의 요약본이 있는데 이를 재인용한다.

이 신화는 하이누벨레신화와 거의 동일한 발상을 가진 신화이다. 이와 동일한 의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전승된다. 그러한 사실은 폴 비르츠가 파푸아뉴기니아의 마린드-아님족의 의례에서도 유사한 면모가 확인된다고 하는 점을 말한 바 있다.<sup>20)</sup>

성인식에서 있었던 장면을 보고하였는데 성인식의 남녀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살해하고 구워먹는다고 하는 것이 결말이고, 여기에 나온 뼈를 묻어 농경의 풍요를 기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머리를 잡아먹는 단계와 농경은 불편하게 공유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의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이야기와 본풀이가 접이지대에 있는 것으로 대륙과 섬의 복합적 교차면이어서 이 두 가지 <밀의 기원>과 <초공본풀이>가 전승되면서 복합과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하이누벨레신화>의 전승과정과 확대 권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자료이다.

---

20) Paul Wirz, *Die Marind-anim von Holländisch-Süd-Neu-Guinea*. Hamburg(네덜란드령 남뉴기니아의 마린드-아님 조사보고서), Friederichsen 1922-1925.

Bd.1, Teil 1: *Die materielle Kultur der Marind-anim*(마린드-아님의 물질 문화). 1922

Bd.1, Teil 2: *Die religiösen Vorstellungen und die Mythen der Marind-anim, sowie die Herausbildung der totemistisch-sozialen Gruppierungen*(마린드-아님의 종교적 신앙과 신화, 그리고 토렘사회집단의 형성). 1922.

Bd.2, Teil 3: *Das soziale Leben der Marind-anim*(마린드-아님의 사회생활). 1925

Bd.2, Teil 4: *Die Marind-anim in ihren Festen, ihrer Kunst und ihren Kenntnissen und Eigenschaften*(마린드-아님, 그들의 세시풍속, 그들의 예술,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자질). 1925

일본에 전승되는 <와쿠무스비(稚産靈)>·<우케모치신화(保食神, うけもちのかみ)>·<오오게츠히메신화(大氣津比賣神, おおげつひめのかみ)>는 특이한 자료이기는 해도 사체화생신화로 작동하고 있는 자료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자료가 두 가지 유형으로 전하는데, 신화소는 신의 몸에서 곡물이 기원을 이루는 점에서 같지만, 유형의 차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다르게 살해되는가에 따라서 자료가 차이가 있다.

살해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일본의 사체화생신화의 중요한 변별점이다. <와쿠무스비신화>는 신이 태어나서 그의 머리 위에 누에와 뽕나무가 나오고, 배꼽에서 오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의식의 기본적 자질이 되는 점이 이 신화의 중요한 결말인데, 살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점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다른 유형으로 이른 바 신의 살해에 입각한 내용이 있는 것이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는 신의 이름이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일본서기》에 전승되는 내용이 각별한데, 이 내용에서 <하이누벨레신화> 신화소의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된다.<sup>21)</sup>

21) 一書十一日 伊弉諾尊任三子曰 天照大神者 可以御高天之原也 月夜見尊者 可以配日而知天事也 素戔鳴尊者 可以御滄海之原也 既而天造大神(あまてらすおおみかみ) 在於天上曰 聞葦原中國有保食神 宜爾月夜見尊(つきよみのみこと) 就候之 月夜見尊受勅而降 已到于保食神(うけもちのかみ)許 保食神 乃迴首嚮國 則自口出飯 又嚮海 則鰭廣鰭狹亦自口出 又嚮山 則毛麤毛柔亦自口出 夫品物悉備 貯之百机而饗之 是時 月夜見尊 忿然作色曰 穢哉 鄙哉 寧可以口吐之物 敢養我乎 迺拔劔擊殺 然後 復命 具言其事 時天造大神 怒甚之曰 汝是惡神 不須相見 乃與月夜見尊 一日一夜 隔離而住 是後 天造大神 復牽天鰐人往看之 是時 保食神實已死矣 唯有其神之頂 化為牛馬 顛上生粟 眉上生蠶 眼中生稗 腹中生稻 陰生麥 及大小豆 天鰐人悉取之去而奉進之 又時 天造大神喜之曰 是物者 則顯見蒼生 可食而活之也 乃以粟稗麥豆 爲陸田種子 以稻爲水田種子 又因定天邑君 卽以其稻

이 신화는 흔히 우케모치신화로 알려져 있다. 이자나미의 세 아들인 삼귀자 탄생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자나기가 삼귀자인 아마테라쓰, 쓰쿠요미, 스사노오 등에게 신의 경계를 확정짓고 다스리라고 하였는데, 쓰쿠요미가 우케모치가 있는 곳에 왔다가 우케모치가 입에서 토한 음식을 대접하자 이를 죽이게 되었다. 아마테라쓰는 이 때문에 우케모치를 간호하기 위해서 아마노쿠마히토를 파견하였다.

아마노쿠마히토는 죽은 우케모치의 몸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머리에서 소와 말이 나오고, 이마에서는 조가 나오고, 눈썹에서는 누에가 나오고, 눈에서 피가 나오고, 배에서는 벼가 나오고, 음부에서는 보리·콩·팥 등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것을 아마테라쓰에게 지참하여 바쳤다.

《고사기》에서는 이러한 살해를 벌이는 신이 쓰쿠요미가 아니라 스사노오노미코토인 점과 살해당하는 신이 오오케츠히메인 점이 다르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오오케츠히메의 코·입·엉덩이 등에서 배설물을 통하여 무엇을 건네주는 점이 서로 일치한다.<sup>22)</sup> 그리고 살해된 신의 여러 곳에서 농경재배에 필요한 갖가지 내용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일치한다.

일본의 <우케모치신화>는 태평양의 신화인 <하이누벨레신화>와 다르지 않다. 신의 살해로부터 인간의 농경재배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이 균일하게 나타난다. 아울러서 이 신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살해될

---

種始殖於天狹田及長田 其秋垂穎 八握莫莫然甚快也 又口裏含繭 便得抽絲 自此始有養蠶之道焉 《日本書紀》

22) 又 食乞大氣津比賣神(おおげつひめのかみ) 爾大氣都比賣自鼻口及尻 種種味物取出而 種種作具而進時 速須佐之男命(たけはやすさのおのみこと)立伺其態 爲穢汚而奉進 乃殺其大宜津比賣神 故 所殺神於身生物者 於頭生蠶 於二日生稻種 於二耳生粟 於鼻生小豆 於陰生麥 於尻生大豆 故是 神產巢日御祖命(かみむすひのみこと)令取茲成種 《古事記》

신이 방문한 신에게 거둬 배설물을 통해서 무엇을 바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이 동질적으로 나타난다.

신의 배설물이나 인간의 배설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요약되어 있다. 하이누벨레가 자신의 배설물을 통해서 자신과 상관계한 존재들에게 많은 은금보화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이누벨레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세계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점을 사회적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에 중요한 반증 사례이다. 신이 인간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인 셈이다.

일본의 신화는 문헌으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누벨레신화>의 본질적인 면모를 전하고 있는 소중한 사례이다. 태평양 신화의 한 가닥에 일본의 중심적 구실이 있음을 이로써 알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신화는 새롭게 조명되고 인식되면서 긴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세드나신화>는 이누잇의 신화로 그린란드와 캐나다 등지에 있는 이누잇이 전하고 있는 신화이다.<sup>23)</sup> 세드나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신화로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화이다. 여성이 아버지에게 벗어나서 혼인을 했는데 이 혼인한 인물이 까마귀였다. 여성이 까마귀가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구원을 청했다가 카약을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서 바다를 지키는 여신이 되었는데, 여성의 몸에서 물개·고래·포유류동물 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결말이다.

이누잇신화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대체로 이 내용의 전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환경이 달라지고 이야기의

23) 김현선, 《하이누벨레신화의 세계적 자취를 찾아서》, 2010년 미발표 책자 원고.

설정 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지만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점이 보이고, 이 내용에 따라서 하이누벨레의 행적과 같은 여신 살해와 그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점은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경재배는 아니고 사냥꾼의 의례 기원을 말하고 있으며 이누잇의 사냥 대상물인 물개·고래·포유류동물 등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이들을 유래하게 한 원인을 말하게 하는 것이 이 신화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농경재배나 사냥하고 채집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동소이한 발상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유형적인 신화소를 통해서 태평양을 넘어서 북극 지방에 거주하는 이누잇들의 신화에서 동일한 신화소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인상적인 현상이다. 근본적인 발상이 일치하는데 바다의 어느 쪽에 인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신화소가 분포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이 신화는 인상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옥수수의 조상>은 치페와 또는 오지브와 인디언들이 전하는 신화인데, 이들 신화의 공통적인 내용은 특정한 존재의 살해와 곡물의 기원을 이루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운츠라는 아이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과 가족을 도와줄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풀과 꽃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하늘의 추장으로 부터 하나의 아이를 보내서 이 아이와 씨름을 하게 한다. 금식을 하면서 이 시련을 견뎌내는데, 마침내 하늘에서 온 친구가 점차 죽게 되고 이 시신을 묻은 무덤에서 싹이 자라나는 곡물이 있는데 이 곡물이 바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면서

마침내 사냥의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sup>24)</sup>

하늘의 추장과 금식하는 아이, 이방인의 방문, 운츠와 이방인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씨름 등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결과로 인간의 세상에 옥수수가 유래된다고 하는 내용은 다소 이질적인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밀의 기원>처럼 흥미로운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하이누벨레신화>의 변형으로 이해된다.

<옥수수의 엄마>는 더욱 <하이누벨레신화>에 근접하고 있다.<sup>25)</sup> 이 신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최초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일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시신을 땅에다 끌고 다니고 뼈를 마당 한 가운데 모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달콤한 담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 신화의 주요 내용이다.

24) 이우학번역, 옥수수의 조상, 《인디언설화》,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6, 48-58면. 이 저작의 근원신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자료로서 결함이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의 신화가 더 있어서 인디언 신화의 보편적 유형임을 알 수가 있다.

25) Richard Erdoes &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Myths and Legends*, Pantheon Books; 1984.

; 옥수수 엄마, 《무엇이 그들의 신화이고 전설인가》, 이가책, 1993, 34-38면.(백승길옮김) 원저를 모두 옮긴 저작이 아니고, 그 가운데 60여개를 발췌하여 번역한 저작이다.



〈페노브스콧 인디언의 위치〉

여신살해와 함께 곡물의 기원을 이루고 담배나무의 기원을 해명하는 것이 이 신화의 주된 내용이다. <하이누벨레신화>의 내용에 입각하여 이 신화가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신화이다. 이 신화적인 내용은 어머니의 살해라고 하는 점에서 각별하고, 담배나무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변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나바호족의 신화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화소가 있는데 이 신화가 바로 <코요테신화>이다. 이 신화의 핵심적인 면모를 요약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시조-코요테의 아내인 한 처녀가 막내 오라버니를 제외하고 그녀의 모든 오라버니들을 죽이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막내 오라버니를 죽이

려고 시도할 때에 그녀는 스스로 사나운 곰으로 자신의 모습을 둔갑했다. 그러나 막내오라버니는 다른 동물신들의 도움 덕분에 대신에 그녀를 죽이게 되었다. 막내 오라버니는 그의 죽은 형제들을 부활시키려고 진행하였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그의 죽은 곰 처녀의 시체를 절단해야만 했다. 전형적인 아메타의 유형적 형태에서처럼 막내 동생은 그 곰처녀를 조각으로 분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냥꾼의 한계에 대한 진정함으로 그는 그녀가 남겨놓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경작하면서 남겨놓은 것에 대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막내 동생은 간단하게 그것들에 대한 조각을 남겨놓았을 따름이다. 어떻게든 그녀의 음부는 넓은 입을 가진 유카로 되었다. 그녀의 젖가슴 가운데 하나는 피니온-나무가 되었고, 나무는 아직도 오늘 날에도 가슴의 형태를 닮은, 피니온-콘 열매로 되는 땅콩의 결과물이 되었다. 그녀의 두 번째 가슴은 고슴도치가 되었다. 하나의 팔은 검은 곰이 되었으며, 다른 한 팔은 푸른 곰이 되었으며, 한쪽 다리는 누런 곰이 되었으며, 다른 한 다리는 흰 곰이 되었다. 그녀의 창자는 가느다란 뱀으로 되었으며, 그녀의 결장은 발정이 난 방울뱀의 머리가 되었다. 그녀의 작은 창자는 긴 뱀이 되었으며, 그녀의 척추가 몽툰한 곰이 되었다.<sup>26)</sup>

이 신화는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신화에서 보여주는 진실은 코요테의 아내를 살해하자 그녀의 시신으로부터 갖가지 생물이 탄생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신을 살해하는 신화소가 있으며 살해된 몸체로부터 여러 가지 생물이 유래하고 특시 식물과 동물이 함께 나오는 현상을 이례적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사고의 표현으로 짐작된다.

---

26) Haile, Father Berard. *Navajo Coyote Tale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Karl W. Luckert. Lincoln and London, 1984, pp. 82-88

### 3.2. 태평양 신화의 다른 한 가닥 : 〈Maui신화〉

태평양 신화의 다른 한 가닥은 <마우이신화>이다. 이 신화는 마우이 성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폴리네시아 일대의 대표적인 문화적 영웅이면서 동시에 트릭스터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 신의 성격에 대해서 뚜렷한 면모는 이미 여러 논의에서 축적된 바 있다.

마우이를 트릭스터와 문화적 영웅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는 여러 문헌으로 확인된다. 트릭스터적 면모를 밝힌 논의로 마우이 사이클을 주목해서 보고자 했다. 마우이 신화는 하나가 아니라 폴리네시아 전체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주목한 견해이다.<sup>27)</sup> 마우이 신화는 마우이 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폴리네시아 전체의 다양한 변이와 유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견해의 요지이다.

마우이는 데미신으로 취급되고 마우이의 이야기는 예사 신화와 본풀이인 서사시로 전승되는데 서사시로 전승되는 내용이 주목을 요한다. 서사시로 전승되는 곳은 하와이이다. 하와이의 서사시인 《쿠물리포》에 마우이의 행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소 인용이 길지만 마우이 신화의 골자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마우이가 등장한 대목을 모두 인용하여 다루기로 한다.

---

27) Roland Burrage Dixon, *Oceanic-the Myths of Polynesia, Micronesia, Indonesia, Melanesia, Australia(The Mythology of All Race, Volume IX)*, Cooper Square Pub, 1932, p. 41

Of all the myths from the Polynesian area, probably none have been more frequently quoted than those which recount the deeds and adventures of the demigod Maui. Among the Polynesians themselves almost every group had its own versions of the tales, and the large number of variants, many of which have fortunately been recorded, make the Maui cycle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 the study of this whole area.

와올레나(Waolena)남자, 마우히에(Mahui'e)아내  
 아카라나(Akalana)남자, 히나-불꽃-아내(Hina-of-the-fire)  
 마우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마우이는 가운데 하나 있었다.  
 마우이-키키(Maui-ki'iki'i)가 태어났을 때, 마우이의 허리싸개에서 태  
 어났다.

허리싸개는 아카라나의 엉덩잇살 덮었던 것이었다.

히나-불꽃-아내는 품었으며, 칠면조가 태어났다.

히나의 아들은 달걀 모양으로 인도되었으며

히나-불꽃-아내는 칠면조와 자지 않았는데

칠면조는 태어났으며

갓난아이가 짹짹거리자 히나는 어리둥절하였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도 이 아이가 태어났다.

히나-불꽃-여인의 이상스러운 아이

두 수호자 큰 쪽과 작은 쪽이 화가 났다.

히나의 오빠들.

동굴 속에 있는 두 수호자.

마우이가 싸움을 걸자 두 수호자는 넘어졌다.

마우이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다.

그것이 마우이의 첫 번째 투쟁이다.

카네와 카나로아를 제사지내는 검은 빛깔의 술 카바(kava)주를 가져왔다.

그것이 마우이의 두 번째 투쟁이다.

카바 거르개 위에서 싸운 것이 세 번째 투쟁이다.

카네와 카나로아의 대나무를 위한 것이 네 번째 투쟁이다.

형상을 모셔놓은 성전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 다섯 번째 투쟁이다.

헤이아우의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섯 번째 투쟁이다.

마우이는 생각에 잠기다가 누가 자기 아버지인가 물었다.

히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너는 아버지가 없다.

칼라나 허리싸개. 그것이 너의 아버지이다.”

히나-불꽃-여인은 물고기를 원했다.

마우이는 고기잡이를 배웠고 히나가 보냈다.

“부모에게 가지고 가라.

이것이 낚시줄이고 낚시바늘이다.

마나이-아-카-키리니(Manai-a-ka-lani) 그것이 낚시바늘이다.

오래된 태양의 모든 육지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마우이는 새-누이(sister bird)인 히나의 쇠물닭을 잡았는데

그것이 마우이의 일곱 번째 투쟁이다.

마우이는 말썽꾸러기 모양 바꿈쟁이를 낚아서

피모에(Pimoe)의 턱을 벌려서 으스르뜨렸듯이

태양에서 외치면서 으스대는 물고기

피모에가 마우이의 존재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피모에의 아들인 마하나-울루-에후(Mahana-ulu-'ehu)에 대한 사랑이 커졌으며

마우이는 그들을 해안가로 던졌으며 그들을 먹었으나

꼬리지느러미는 남겨놓았다.

카네와 카나로아는 자리에서 흔들렸다.

마우이의 아홉 번째 투쟁으로

피모에는 “꼬리지느러미를 통해서 살았다”

마하나-울루-에후도 “꼬리지느러미를 통해서 살았다”고 했다.

히나-케-카(Hina-ke-ka)는 페아페아(Pe'ape'a)에 의해서 납치되었었다.

페아페아는 문어 가족의 신으로

그것이 마우이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마우이는 페아페아의 여덟 개 달린 눈을 후벼 뚫다.

모에모에(Moemoe)와 함께 마지막 투쟁을 끝냈다.

마우이와 태양의 싸움을 누구나 안다.

마우이가 올가미 줄을 써서

태양은 겨울이 되고,

마우이는 여름이 되었다.

마우이는 카네와 카날로아의 마지막 앙금인

노란 물을 마셨다.

마우이는 속임수를 쓰면서 노력했다.

하와이(Hawaii)의 주변에, 마우이(Maui)의 주변에

카우이(Kauai)의 주변에, 오투(Oahu)의 주변에

카후룰우(Kahulu'u)는 태반이고, 와이카네(Waikane)는 탯줄이다.

마우이는 쿠알로아(Kualoa)의 하키푸우(Hakipu'u)에서 죽었다.

허리싸개의 마우이는

섬의 무법상태 모양 갖추는 자로

진정한 부족장이었다.<sup>28)</sup>

---

28) Martha Warren Beckwith translated with commentary, *THE KUMULIPO-A Hawaiian Creation Chant*,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2, pp. 135-136

Waolena was the man, Mahui'e the wife  
 Akalana was the man, Hina-of-the-fire the wife  
 Born was Maui the first, born was Maui the middle one  
 Born was Maui-ki'iki'i, born was Maui of the loincloth  
 The loincloth with which Akalana girded his loins  
 Hina-of-the-fire conceived, a fowl was born  
 The child of Hina was delivered in the shape of an egg  
 She had not slept with a fowl  
 But a fowl was born  
 The child chirped, Hina was puzzled  
 Not from sleeping with a man did this child come  
 It was a strange child for Hina-of-the-fire  
 The two guards [?] were angry, the tall and the short one  
 The brothers of Hina  
 The two guards within the cave  
 Maui fought, those guards fell  
 Red blood flowed from the brow [?] of Maui  
 That was Maui's first strife  
 He fetched the bunch of black kava of Kane and Kanaloa  
 That was the second strife of Maui  
 The third strife was the quarrel over the kava strainer  
 The fourth strife was for the bamboo of Kane and Kanaloa

---

The fifth strife was over the temple inclosure for images [?]  
The sixth strife was over the prayer tower in the heiau [?]  
Maui reflected, asked who was his father  
Hina denied: "You have no father  
The loincloth of Kalana, that was your father"  
Hina-of-the-fire longed for fish  
He learned to fish, Hina sent him  
"Go get [it] of your parent  
There is the line, the hook  
Manai-a-ka-lani, that is the hook  
For drawing together the lands of old ocean"  
He seized the great mudhen of Hina  
The sister bird  
That was the seventh strife of Maui  
He hooked the mischievous shape-shifter  
The jaw of Pimoe as it snapped open  
The lordly fish that shouts over the ocean  
Pimoe crouched in the presence of Maui  
Love grew for Mahana-ulu-'ehu  
Child of Pimoe  
Maui drew them [?] ashore and ate all but the tailfin  
Kane and Kanaloa were shaken from their foundation  
By the ninth strife of Maui  
Pimoe "lived through the tailfin"  
Mahana-ulu-'ehu "lived through the tail"  
Hina-ke-ka was abducted by Pe'ape'a  
Pe'ape'a, god of the octopus family  
That was Maui's last strife  
He scratched out the eyes of the eight-eyed Pe'ape'a  
The strife ended with Moemoe  
Everyone knows about the battle of Maui with the sun  
With the loop of Maui's snaring-rope  
Winter [?] became the sun's  
Summer became Maui's  
He drank the yellow water to the dregs [?]  
Of Kane and Kanaloa  
He strove with trickery

하와이 서사시 《쿠물리포(Kumulipo)》는 하와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국인 칼라카우아 국왕(King Kalakaua)이 왕가에서 간직하고 있는 필사본을 1889년에 출판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쿠물리포라는 말은 하와이 말로 'Kuauhau'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은 '본풀이의 기도 노래(genealogical prayer chant)'라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는 고위 사제자를 하와이의 말로 'Haku-mele'라고 하며 이들에 의해서 불려지는데, 이를 번역하여 말한다면 노래의 거장 "Master-of-song" 이라고 한다.<sup>29)</sup> 이 인물은 신분적 지위가 높은 존재이다.

위에 인용한 자료 마우이의 이야기는 제15장에 등장한다.<sup>30)</sup> 마우이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길게 인용한 부분을 보면 폴리네시아 전체의 마우이와 다르지 않은데, 이 내용을 서사시의 일환으로 삽입해서 마우이의 일생을 간략하게 간추리고 신화적

---

Around Hawaii, around Maui  
 Around Kauai, around Oahu  
 At Kahulu'u was the afterbirth [deposited], at Waikane the navel cord  
 He died at Hakipu'u in Kualoa  
 Maui-of-the-loincloth  
 The lawless shape-shifter of the island  
 A chief indeed

29) Martha Warren Beckwith translated with commentary, *THE KUMULIPO-A Hawaiian Creation Chant*,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2, p.35 "The work of weaving genealogies into a hymnlike chant commemorating the family antecedents was the work of a Haku-mele or "Master-of-song," attached to the court of a chief, one who occupied also the special post of a Ku'auhau or genealogist. He held an honored place in the household."

3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422-431면. 이 저작에서 상세한 내용이 요약되었으며, 성격에 관한 논란을 자세하게 했다. 이 논지를 존중하고 필자의 관점에서 재론한다. 특히 마우이의 장난꾸러기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론하고자 한다.

인 내용을 서사시로 편입시킨 흔적이 있다.

마우이의 서사시 내용은 다면적인 내용을 간추리면서 일정하게 재구성하면서 편입하였다. 그것을 정리하면 반신반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것을 탄생, 투쟁, 영웅적 행위, 죽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요약이 매우 요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네의 전통적인 영웅의 일생 서사시 공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우이는 탄생에서 특별한 탄생을 하였다.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며 난생과 아버지 없이 잉태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동시에 알로 인도된 점은 전형적인 난생설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아버지와 자지 않고 열대지역의 섬에서 남성들의 성기 가리개를 허리에 둘렀는데도 아이가 잉태되는 일이 벌어졌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칠면조와 관련되는 조생화소, 알로 연결되는 난생화소, 다음으로 아버지 없이 잉태되는 무부지자 화소 등이 다각도로 얽혀 있다. 마우이의 탄생에 얽힌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얽혀 있는 점을 본다면 신이한 탄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각별하다고 하겠다.

마우이의 투쟁은 대체로 열 가지로 전개된다. 열 가지의 내용은 신과 인간, 그리고 마우이의 투쟁에 대한 것인데,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신들의 권위나 고정관념과 맞서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신성을 모독하고 신의 권위를 물리치는 일을 주력하였다. 신성에 대한 도전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데 할애되는데 신성을 부정하고 이를 인간적인 질서로 창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대한 부정하고 인간들의 고유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것이 반신반인의 운명

이고 이 운명에 의해서 이 두 세계의 경계면을 오고가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경계면에서 틈새를 오고가면서 이러한 질서를 넘나드는 구실을 하고 있다. 신성과 인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열 가지의 투쟁 내용은 거의 공통적으로 신성 도전과 모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영웅적 행위가 있으며 이 행위가 마우이의 성격을 문화영웅적 면모로 이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문화영웅으로 중요한 특징은 몇 가지 관점에서 관찰된다. 마우이가 신들에게 배운 자신의 낚시질을 통해서 섬들을 끌어당기면서 섬을 고정하는데 섬의 창조와 관련된다. 이 역시 신들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주목된다. 다음으로 해와 달을 조정하는 일월조정이다.

문화영웅으로서 섬을 낚시질하면서 대지를 끌어 모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만들어놓은 섬을 모으는 일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창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모가 있다. 다음으로 일월조정은 매우 상징적인 행위이다. 태양이 너무 빨리 돌아서 이를 마우이가 자신의 텃줄을 가지고 이를 잡아 해를 현재와 같이 고정하고 낮과 밤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소별왕과 대별왕이 하늘의 해와 달이 두 개인 것을 하나로 고정하고 인간의 문화적 질서를 창조하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인간세상의 사회적 무질서를 창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무질서를 창조하는 것과 문화적 영웅의 행위를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점에서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마우이의 중요한 면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불멸의 추구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 그 불멸의 권능을 찾아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대목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신화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해당 대목을 찾아서 마우이의 죽음을 보기로 한다.

마우이는 인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인간이 불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찾게 된다. 마우이는 다시 찾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상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죽음의 여신인 히네누이 테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마우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선조 여신에 대해 거둬 묻는다. 아버지는 마우이에게 여신은 지평선의 섬광이 그녀의 눈이라고 하고, 푸른 옥은 눈동자라고 하고, 머리칼은 뒤엀킨 해초라고 하고, 입은 상어의 입이고, 이빨은 흑요석처럼 날카롭다고 하면서 맞설 수 없을 거둬 강조한다. 마우이는 여신과 싸워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노력한다. 최후의 모험에 숲 속의 새를 데리고 가면서 새들에게 여신의 몸속에 들어갈 때에 웃지 말라고 하지만, 무릴랑가의 턱뼈를 가지고 여신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 목 근처로 이르자 이 모습을 본 공작비둘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버리자 결국 여신인 히에누이테포가 눈을 뜨고서 마침내 마우이를 삼키게 되었다. 그래서 마우이가 불멸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sup>31)</sup>

31) W. D. Westervelt, Maui Seeking Immortality, *Legends Of Maui - A Demi-God Of Polynesia And Of His Mother Hina*, The Hawaiian Gazette Co, 1910, pp.128-139

B.G. Biggs, 'Maori Myths and Traditions' in A.H. McLintock (editor), *Encyclopaedia of New Zealand, 3 Volumes.*(Wellington : Government Printer:1966), pp. 449-450

Māui now considers himself ready to win immortality for humankind. His father tries to dissuade him, predicting that he will fail because of the mistakes in his baptismal ceremony. His father says to him, "My son, I know that you are a brave fellow and that you have done all things. Yet I am afraid that there is someone who will defeat you." "Who could that be?" asks Māui. "Your ancestress Hine-nui-te-pō (Great woman of the nightworld). You can see her flashing there on the horizon." "Is she as strong as the sun?" asks Māui. "I trapped him and beat him. Is she greater than the sea, which is greater than the land? Yet I have dragged land from it. Now let us see whether we will find life or death." His father answers, "You are right, my last-born, and the strength of my old age. Go, find your ancestress who lives at the side of the sky." "What does she look like?" asks Māui. "The red flashing in the western sky comes from her," says

마우이의 죽음은 반신반인의 운명을 가진 인물이 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인간을 위한 희생이 곧 자신의 불멸을 얻게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인간 역시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논한다면 마우이는 매우 중요한 문화영웅이고 트릭스터적 면모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우이의 면모는 일단 폴리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에서 긴요한 변이형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마우이의 신화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하와이, 톤간섬, 타히티, 망가레바, 사모아 등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사모아에서는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티이티이(Ti'iti'i)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근간 요소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 한 가닥의 이야기는 남태평양의 중요한 신화적 기반이 되고 신화와 서사시에서 풍부하게 전승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트릭스터들의 전승이 다시 북방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이른 바 다른 특정한 트릭스터로 바뀌게 된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물형이 바뀌어서 쥐-사슴(mouse-deer, kantjil or pelanduk) 등의 동물성격으로 뒤바뀌게 된다.<sup>32)</sup>

---

the father. "Her body is like a human being, but her eyes are greenstone, her hair sea-kelp, and her mouth is like a barracouta's mouth".  
.....(이하 생략)

32) Roland Burrage Dixon, *Oceanic-the Myths of Polynesia, Micronesia, Indonesia, Melanesia, Australia(The Mythology of All Race, Volume IX)*, Cooper Square Pub, 1932, p.186

Corresponding to the Maui cycle in Polynesia in universality, characteristic quality, and popularity, but differing entirely in type, are the Indonesian trickster tales centring about the mouse-deer (kantjil or pelanduk), the tarsier ape, or the tortoise; and these stories, of which there are very many versions, may well be considered next, and before taking up those of more miscellaneous character.

쥐-사슴은 폴리네시아에서 보편성, 인물적 자질 그리고, 대중성 그러나 유형의 차별적 완전성에 있어서 거의 마우이의 사이클과 대응하는 유형이라고 말한다. 쥐-사슴, 안경원숭이 유인원류, 또는 거북이 등이 트릭스터로 등장하면서 많은 각편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은 집중적인 고찰이 요구되며 다른 각도에서 따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우이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제주도 등지에서는 평행창조신화소로 존재하며, 일부 간혹 동물담에서 확인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행창조의 과정 속에서 마우이와 유사한 행동과 사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우이와 대응하는 존재가 가령 소별왕과 석가, 일본의 사사노오노미코토 등이 이러한 구실을 하게 된다.

북해도에 전승되는 아이누족의 서사시인 아이누 유카르에서는 일부 오키쿠루미, 사마이운쿠르, 아이누랏쿠르, 오키쿠루미카무이 등이 반신 반인의 트릭스터적 성격이 있으며, 일부 카무이 유카르에서 동물신이 이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누랏쿠르처럼 본질적인 면모를 지닌 것은 아니다.<sup>33)</sup> 이러한 점에서 북해도에 전승되는 서사시에서도 마우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신이 있으며 태평양의 중요한 신화소적 면모를 지닌다.

북미 지역에서는 이러한 트릭스터들이 흔하게 코요테 또는 토끼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야기의 내용은 문화영웅과 트릭스터적 성격을 공유

33) 更科源藏, 《アイヌの神話》, みやま書房, 1981; 이경애역, 《아이누신화》, 역락, 2000, 27-28면. 이 저작에서 본질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아이누서사시 전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데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金田一京助, 《アイヌの聖典》, 世界文庫刊行會, 1923.

金成マツ筆録, 金田一京助 譯註, 《アイヌ叙事詩 ユーカラ集》9卷, 三省堂, 1959.

久保寺逸彦, 《アイヌ叙事詩 神謠・聖傳の研究》, 岩波書店, 1977.

・萱野茂, 《萱野茂のアイヌ神話集成》1-10卷, 平凡社, 1998.

하면서 서로 대등하게 되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의 사이클은 남태평양에서 출발하여 북태평양, 그리고 환태평양의 보편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점이 확인된다.

문화적 영웅의 이야기가 동물과 반신반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이름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점이 거듭 확인된다. 이 유형의 전통적인 특징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신화적 두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다. 문화적 영웅의 신화는 어느 곳에든 있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가 중요한 갈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환태평양신화의 특징이다.

태평양신화에서 두 가닥의 신화는 구조적 지형학을 소묘하는데 긴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신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준거를 제공한다.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신화의 여러 면모보다 이 두 가닥의 신화가 상보적이면서 차별되는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

북태평양지역 가운데 몰과 연결되고 문화적 충격을 거듭 받는 쪽에서 특정하게 통일된 창조신화나 건국신화가 조직적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이고, 다른 곳에서는 창조신화나 건국신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와이의 왕조가 있었지만 건국서사시 정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체계적인 창세신화를 과연 형성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두 가닥의 신화 유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원시신화의 문화적 전환을 암시하는 단계로 하이누벨레신화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레오 프로베니우스나 옌젠의 연구 방향이나 결과보다 세계적으로 드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구전으로 전하는 신화 속에 이 신화는 더욱 폭넓게 확인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서 북미의 연안인 태평

양과 대서양, 심지어 북극해에서도 이러한 신화가 구조적 변형을 통해서 이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신화의 중요한 골자는 조상신의 살해와 문화적 이행이라고 하는 필요불가결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는가 하는 문제가 인간의 조상을 살해하고 조상과 결별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문화적 전환과 기념을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습관과도 깊은 맥락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이 이야기가 긴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조상신의 살해, 곧 데마신(Dema deity 또는 Dema god)의 살해는 인간사냥(Cannibalism)의 불가피성과 육식이나 수렵이 아닌 곡식재배 또는 원만한 식량확보 등이 신의 살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설정과 관련된다. 특정한 북극대양이나 캐나다의 이누이트에게서는 바다의 동물인 포유류와 관련된 변형이 일어나지만 이 골격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인간에게 감출 수 없었던 문화적 전환에 대한 강렬한 각인이 이 신화와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상보적으로 신의 세계를 배반하거나 도전을 하여 반신반인의 문화영웅인 특정한 신을 내세우는 신화가 존재한다. 하이누벨레신화와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 둘은 불가피하게 서로 신화의 세계관을 파괴하고 신화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두 가지 징표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일치한다.

신화에서 영원한 생명이나 특정한 창조주에 의해서 안락한 삶이나 영생을 보장받는 신화들이 있다. 가령 그러한 신화들의 전례가 창조주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신화들이 있다. 그러한 신화들은 중동의 메소포타미아신화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집트·수메르·그리스 등지의 신화나 문화적 창조를 통일적으로 이룩한 지역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신화라

고 할 수가 있다.

이 신화는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의 산물이므로 단일한 창조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자신을 닮은 신이 제공하는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는 신화적 설계가 있다. 영생의 약속을 통해서 불멸의 복락을 제공하고, 남녀의 성관계를 금기시하고, 신에게 맹종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제이다.

신의 절대적 권능을 의심하고 신의 질서를 인간에게 가져다주는데 있어서 문화적 영웅은 매우 주목되는 구실을 했다. 신의 능력이나 산물을 인간세계로 옮겨주고 인간에게 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제공하는 것이나 길가메쉬가 교만(Hubris)을 통해서 신에게 도전하는 일은 그러한 사고방식의 소산이다. 트릭스터 유형의 신화가 이러한 면모를 가지는데 이러한 신화가 태평양 신화에 편만한다.

종래의 신화적 구조적 유형학에서는 트릭스터 유형과 조상신 신화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우리는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유형학을 통해서 상보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둘은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각기 존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하이누벨레신화가 있는 곳에 트릭스터신화도 있기도 하고, 각기 있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종래의 신화학에서는 언어민족학이나 민족지적 근거를 통해서 단순히 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sup>34)</sup> 가령 파푸아유형과 힌디

34) Roland Burrage Dixon, 같은 책, pp.304-307

The oldest and most primitive stratum of mythology in Oceania is either lost to us entirely, as in the case of Tasmania, or else is unknown, since no material from the Negrito peoples of the area is as yet accessible. Of its character, affiliations, and sources, therefore, nothing can be said.

인도유형으로 갈라서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가

---

Following next upon this, at least in Melanesia and Australia, is what has been called the Papuan type--still very imperfectly known and apparently quite variable in its character. With the rest of the mythology of Oceania it presents comparatively little in common except in Melanesia, where the later Melanesian stratum probably contains a considerable element derived from it. Of the sources of this Papuan type little or nothing can be said. As the Negrito and Tasmanian strata are followed by the Papuan in Melanesia and Australia, in Indonesia the Negrito is succeeded by the Indonesian layer. Unlike the Papuan, this has wide affiliations which extend, on the one hand, well into south-eastern Asia (i. e. to Assam, Burma, and Indo-China), and on the other, to Micronesia, Melanesia, and Polynesia. It is at least a plausible hypothesis that the characteristic myths of this type were spread by a wave or series of waves of people who, moving from the Asiatic mainland into Indonesia, passed thence, on the one hand, to Micronesia and Hawaii, and on the other, through northern Melanesia to Polynesia.(304-305면)

Coincident with, or perhaps preceding, the departure of the second main wave of peoples from Indonesia, Hindu elements penetrated to Sumatra and Java. It is as yet difficult to say whether this invasion of Indian culture and peoples was a cause of the emigration of the later Polynesian ancestors, but it seems probable that some of these latter were slightly influenced by Indian contact; and we must also bear in mind the possibility that these Hindu and South Indian elements may have been transmitted later by trade and other factors. Although the influence of Indian beliefs was slight in Melanesia, and perhaps negligible in Polynesia, it was strong in Indonesia, especially in the west; and while it is still uncertain how far the spread of these Asiatic elements was due to early Malay movements northward into the Philippines, these Malay migrations seem to have been factors. Last of all comes the Muhammadan influence, which has made itself felt everywhere in Indonesia except among the wilder interior tribes, and whose effects farther eastward appear to be limited to the extreme western parts of New Guinea.(307면)

티슨의 일반적 결론을 이러한 각도에서 마련하였다. 파우아유형과 인도네시아 힌디-인도네시아유형이 남방과 북방으로 갈라져서 전파되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구분은 언어와 종족의 분포와 변이를 중심으로 하는 견해이다.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전파론적 견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르려는 관점이 그것이다. 파푸아유형이 미크로네시아나 멜라네시아, 그리고 폴리네시아 등지로 확장하여 갔다고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힌디 인도유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까지 확장되고 그 기점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이 가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신화적인 유형학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색다른 회의가 든다. 가령 우리나라와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 북극과 캐나다의 이누잇 등을 어떠한 각도에서 다룰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그것은 신화학적 가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태평양 신화를 모두 모아놓으면 바다에 섬으로 섬에서 바다로, 그리고 물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작용의 연쇄를 만나게 된다. 이 두 가닥의 신화는 전혀 다른 소인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신화적 자질로 매우 다양한 분포와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사고에 근거하는 특정한 방식이다.

인간이 언어를 소유하고, 특정한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보편적 양상이다. 통일된 왕조를 이룩하지 못했음에도 인간의 보편적 사고 능력을 구현하고 정보를 집약해서 전달하는데 신화와 신화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 의례적 보편성이 이용되었다.

억압된 질서를 부정하고 신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문화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불멸보다 소멸을 당연시하는 위대한 집단의 공통적 기억과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신화의 핵심적 주제이다. 영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영생이 아닌 소멸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멸을 통해서 인간의 불변하는 기억으로 영생을 이어가는 노력의 소산이 바로 신화라는

점을 일깨운다.

태평양 신화는 신화의 근본적 세계관이 동일하다는 놀라운 발상을 공질성으로 하고 있다. 섬에 사는 민족마다 고유한 신화를 일깨웠지만 원시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공통적 사고의 전개 과정을 근간으로 하면서 인간의 문명에 대한 추구가 하나임을 각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데 제주도는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한다. 본풀이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의 특정한 신화적 주체의 신화소는 태평양 신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하겠다. 만약에 이 본풀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드넓은 대양으로 향해하는 입각점을 상실하게 된다.

이 입각점을 가지고 보니 일본의 아마테라스·쓰쿠요미·스사노오 등의 삼귀자 신화는 거듭 재평가될 소인을 가지게 되었다. <천지왕본풀이>와 <초공본풀이>의 체계를 가지고 일본신화를 비교하게 되면 매우 주목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신화의 이상한 면모가 사실은 특수성의 국면이 아니라 보편성의 다른 특징임을 절감하게 된다.

#### 4. 제주도 본풀이로 보는 태평양 신화학의 전망

제주도에서 닳을 내리고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본풀이와 이야기는 우리나라와 주변의 섬들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종래의 연구를 집중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이제 제주도 본풀이의 자료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그것이 도달점이 된다면 허망한 일이 된다.

학문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일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드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차례이다. 일차원의 본풀이 학문이 아니라 다차원의 학문을 하는데 제주도 본풀이는 많은 준거를 제공하게 되리라 예견된다.

제주도의 본풀이를 닷 삼고, 이제 이 본풀이로 뜻을 올려, 본풀이로 방향타를 삼아야 한다. 태평양의 드넓은 신화학을 위하여 아기가 바닷물을 한 줌 움켜쥐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 바닷물 한 움큼이 바로 본풀이임을 절감하게 된다. 인류의 생명 근원이자 오랜 집단의 기억이 각인된 바다를 근거로 태평양 신화를 바라보는 것은 막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학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깊은 각성이 된다. 태평양 신화에서 본풀이가 차지하는 뚜렷하고도 확실한 위치가 있으므로 불안하지 않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방향타이다. 본풀이의 풀어헤쳐진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서 경이로운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자면 제주도의 본풀이를 다시 연구하고 관점을 달리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안팎으로 이치를 탐구하면서 제주도의 본풀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선입견이 없는 연구 대상이 된다.

제주도의 본풀이에 수많은 정보가 집약되어 있어서 이야기의 가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이를 차례대로 벗겨내서 보면 제주도의 고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소별왕과 자지멩왕아기씨는 그러한 요소로 주목받아 마땅하다. 소별왕을 석가와 견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오히려 신화학적 가설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 신이 준 인류에의 혜택이 긴요하다. 마찬가지로 각도에서 자지멩왕아기씨의 정체 역시 중요한 변별 기준이다. 출병막을 헤쳐보니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신살해의 흔적이다.

우리는 종래 제주도의 본풀이를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연구했던 경향이 있었다. 특정한 신화소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신화소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태평양 신화에서 하이누벨레와 마우이가 바로 이들의 근원적 유형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인물과 연계성 때문이고, 연구가 진정하게 넓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향타를 잡은 셈이다.

태평양 신화의 탐사선을 세우는데 제주도의 본풀이가 요긴한 일이나, 위의 두 가지 본풀이가 절대적인 준거는 아니다. 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돛제와 같은 데서 불리는 본풀이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한 의의를 가지는 신화적 내용이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 일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으며, 이 돼지고기를 통한 의례의 세계적 분포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태평양 곳곳의 신화 연구는 전인미답의 경지인 신천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험적인 장소이다. 바닷물이 재앙이면서 축복이었던 곳에서 신화를 일구고 원시적 사고의 집약체를 전승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상이 무엇인지 아는데 제주도의 본풀이는 전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진다.

태평양 신화를 점검하는데 제주도의 본풀이를 근간으로 했지만 사실은 태평양 신화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태평양 신화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하이누벨레신화>와 <마우이신화>는 매우 유용한 근거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평양 지역과 북미대륙에 분포하는 소수민족들의 신화는 특정한 지역에서 마련된 중세문명권의 세례를 겪지 않은 특징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문화적 창조가 한창이고 농경문화를 혁신한 시대의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바탕에서 마련된 신화이므로 이 점에서

이 신화는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중세문명과 강력한 정치권력을 구축한 쪽에서 마련한 신화와 서사시는 특정한 주체를 강조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를 겪지 않은 쪽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방식을 전혀 다른 해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특징을 구현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소박한 문화적 창조가 어떻게 삶을 구현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는지 신화적 골격을 통해서 구현한다.

태평양 신화가 세계문명에 기여하는 바가 이 점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들만의 최소한 소통구조를 개척하면서 문화적 발전에 일정한 대가가 따르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신화적 주제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신화들의 근본적인 면모이다. 죽음을 인정하고 모험을 하면서도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지역의 신화에서 발견되는 도달점이다.

제주도의 본풀이와 일본의 신화가 소중함 점은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대륙과 연결되는 섬이고, 일본 역시 대륙의 중세문명에 일정하게 소속되어 있는 섬이다. 중세문명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대륙과 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정하게 두 문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신화를 개척하였다.

그 결과 태평양 신화에 일정하게 주된 특성을 구현하는 제주도의 본풀이와 일본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일본의 북쪽에 있는 북해도의 아이누신화와 본풀이인 유카르, 일본의 남쪽에 있는 류큐열도의 신화와 본풀이 역시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 신화의 특징을 탐구하는데 제주도의 본풀이와 신화가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주도의 본풀이는 이러한 각도에서 다시 연구해야 할 대상이 된다. 통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본풀이를 해체하고 이것에 남아 있

는 원시신화적 면모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본풀이  
는 역시 경이로운 특성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태평양 신화를 파악하고  
자 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는 점은 이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김현선, 《하이누벨레신화의 세계적 자취를 찾아서》, 2010년 미발표 책자.
- 김현선, <밀의 기원>담의 Hainuwele적 성격, 2010년 4월 2일 미발표 논문.
-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이우학번역, 옥수수의 조상, 《인디언설화》,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6.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현용준, 오백장군,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 《中國各民族宗教與神話大詞典》(北京 : 學苑出版社, 1993)
- 萱野茂, 《萱野茂のアイヌ神話集成》1-10卷, 平凡社, 1998.
- 更科源藏, 《アイヌの神話》, みやま書房, 1981; 이경애역, 《아이누신화》, 역락, 2000.
- 久保寺逸彦, 《アイヌ叙事詩 神謠・聖傳の研究》, 岩波書店, 1977.
- 金田一京助, 《アイヌの聖典》, 世界文庫刊行會, 1923.
- 金成マツ筆録, 金田一京助 譯註, 《アイヌ叙事詩 ユーカラ集》9卷, 三省堂, 1959.
- 大林太郎, 『神話學入門』(中公新書, 1966年); 權泰孝·兒玉仁夫翻譯, 《神話學入門》, 새문사, 1990.
- 大林太良, 《神話の系譜, 日本神話の源流をさぐる》(東京 : 青土社, 1986)
- W. D. Westervelt, Maui Seeking Immortality, *Legends Of Maui - A Demi-God Of Polynesia And Of His Mother Hina*, The Hawaiian Gazette Co, 1910.
- Paul Radin,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Schocken, 1987.
- Roland Burrage Dixon, *Oceanic-the Myths of Polynesia, Micronesia, Indonesia, Melanesia, Australia(The Mythology of All Race*,

- Volume IX), Cooper Square Pub, 1932.
- Jonathan Z. Smith,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 301-330
- Paul Wirz, *Die Marind-anim von Holländisch-Süd-Neu-Guinea*. Hamburg (네덜란드령 남뉴기니아의 마린드-아님 조사보고서), Friederichsen 1922-1925.
- Bd.1, Teil 1: Die materielle Kultur der Marind-anim(마린드-아님의 물질문화). 1922
- Bd.1, Teil 2: Die religiösen Vorstellungen und die Mythen der Marind-anim, sowie die Herausbildung der totemistisch-sozialen Gruppierungen(마린드-아님의 종교적 신앙과 신화, 그리고 토렘사회집단의 형성). 1922
- Bd.2, Teil 3: Das soziale Leben der Marind-anim(마린드-아님의 사회생활). 1925
- Bd.2, Teil 4: Die Marind-anim in ihren Festen, ihrer Kunst und ihren Kenntnissen und Eigenschaften(마린드-아님, 그들의 세시풍속, 그들의 예술,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자질). 1925
- Richard Erdoes &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Myths and Legends*, Pantheon Books; 1984 ; 옥수수 엄마, 《무엇이 그들의 신화이고 전설인가》, 이가책, 1993.
- Haile, Father Berard. Navajo Coyote Tale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Karl W. Luckert. Lincoln and London, 1984.
- Martha Warren Beckwith translated with commentary, *THE KUMULIPO—A Hawaiian Creation Chant*,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2.
- B.G. Biggs, 'Maori Myths and Traditions' in A.H. McLintock (editor), *Encyclopaedia of New Zealand, 3 Volumes*(Wellington : Government Printer:1966)
- Jensen, A.E. and Herman Niggemeyer, *Hainuwele ; Völkserzählungen von der Molukken-Insel Ceram* (Ergebnisse der Frobenius-Expedition vol. I), Frankfurt-am-Main, 1939.
- Joseph Campbell, *The Masks of God : Primitive Mythology*, 1959. ; 이진구 역 《신의 가면 1 : 원시신화》, 까치, 2003.

**Abstract**

## Structural topography of the Pacific mythology drawings

Kim, Heon-Seon\*

This paper to understand the myth of the Pacific Ocean is equivalent to a preliminary study. Myth Pacific Oceania is very comprehensive, targeted largely to the myth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Melanesia, Micronesia, Polynesia, Indonesia, and equivalent to general. The center of Jeju to focus Bonpuri and myth is addressed as a whole can handle both. Trickster myth and men and women in particular murder of all who will be able to leverage the composition. "Chogongbonpuri" and the "Cheonjiwangbonpuri" and to lead, and soon these patterns and the Maui-Hainuwele myth is the myth you believe, etc. can be expanded.

Pacific myths that many important reasons, but the sea around the islands of the mythic structure and confirmed that they have in common is the premise. Focusing on the land collectivel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many myths, but only a record of oral traditions and oral traditions to the island by the sea in the background to the myth that lack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will be noticed. Focusing on the land can not be seen in the myth of the myth of pure native wildlife and humans looking for a serious life of a myth is an important guideline.

In addition to focusing on the myth of the Pacific ocean that once

---

\* Kyonggi University

unified dynasty and medieval civilizations preach the baptism of the uninjured side, equipped with a true aspect of the myth is showing. So the throne, or a particular power has tilted the fundamental issue of human reproductive problems of food issues and it is showing the most serious aspects of this myth is true. Pacific did not identify a relatively perfect, the myth was able to identify the authenticity, perfection of this structure is valued and is identified as a topography.

**Key Words**

Pacific mythology, Hainuwele myth, structural geomorphology, Maui myth, Hina myth

**교신 : 김현선**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kimheonseon@hanmail.net 전화 : 031-249-9108)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30.

게재확정일 2010. 08. 10.